

## 사이버공간과 글로벌 공감사회

서문기\*

### The Global Empathetic Society in Cyber Space

Moon-Gi Suh\*

**요약** : 국제지형에서 인터넷의 효과와 핵심쟁점을 이해하는 작업은 각국의 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형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요소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에서 확장하여 정보화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방식과 각국의 문화적 토대는 글로벌 공동체의 분권화를 향한 새로운 균형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원화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과정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의해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 역동적인 권력이동의 함수관계를 포함하며 글로벌 공감사회를 향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다.

**주요어** : 사이버 공간, 공감사회, 경제성장, 정보통신기술, 문화가치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ritical issues of globalization and present an alternative framework that places ICT in the function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o adjudicate the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effect of developmental factors, i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global trend that leads to the comprehensive mechanism of ICT and cultural residues. The advent of the global community in cyber space requires a new balancing point by the mode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among all societies and operation with decentralized authority. This interdependence, by providing diverse network structures and participating in cyberspace, includes the power shift from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voluntary collaboration and bring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global empathetic society.

**Key Words** : cyber space, empathetic society, development, ICT, cultural residue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3A2067374)이며,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고정재기 교수님과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mgsuh@ssu.ac.kr)

## 1. 문제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혁명과 네트워크 사회의 시대는 국제지형에서 새롭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다주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많은 인권 및 환경단체나 비(非)정부조직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및 비(非)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NPO)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하나의 인권의 개념으로 수용하거나 채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식에 의해 모바일 단계를 지나면서 네트워크의 구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을 반영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체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체를 다원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협력과 역량강화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서 짧은 기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정보화 및 세계화 과정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에 열광하고 있기도 하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는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 구조로 ICT 산업의 발전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포함하여 전기차와 빅데이터 등 4차 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에 따라 조직체의 유형과 사회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ICT 혁명에 의한 새로운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개념도 경제 및 군사 영역에서 정보 및 문화 등 소프트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정보, 지식, 기술의 사회적 활용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박삼욱·최지선, 2003).

동시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터넷 체제를 관리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나 규칙을 마련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내 또는 국가간 네트워크 구조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인터넷의 힘을 제어하려고 종종 불투명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법률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배양해 왔으며, 그 결과 인터넷 혁명이 민주적인 열린 사회의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과학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Lessig, 1999; Unwin, 2009). 특히 한류현상과 같이 문화적 생태계의 영향력이 뉴미디어를 통해 국제지형에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공감의 공동체(empathetic community)가 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함의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국제질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보화와 경제성장에서 앞서 있는 서구의 입장과 국제질서와 새롭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둘러싼 규칙, 규범,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지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온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확장하여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지형에서의 ICT의 역할을 이해하는 작업은 각국의 사회발전을 둘러싼 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델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감사회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 2. 이론적 배경

새롭게 발전하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인터넷이 거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어느덧 당연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어느 국가에서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신기술을 전파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이 소요되며, 더욱이 한 국가가 새로운 통신기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진입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원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문제이다. 인터넷과 ICT 기술에 대한 투자는 여타 영역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발전과정을 둘러싼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갈등의 문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과 배분이 필요하며, 기술수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함께 공감사회의 문화적 토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ifkin, 2010). 무엇보다도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각국의 의지와 능력이 다르고 사이버 공간의 공유된 영역과 관계를 둘러싼 변수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특성과 함의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정책적인 연구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화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ICT 혁명이 국제사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보통신기술이 국가의 경제적 능력 및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Madon, 2004; Thompson, 2008; 강하연, 2013). ICT에 의해 경제동맹이나 합작투자의 환

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계선이나 국적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Multi National Corporations: MNCs)이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성 증대와 수출시장의 확보 등을 목표로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추진되어 세계로 진출해 나갔지만,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로 새로운 노동력과 공장을 찾아 급속히 이동하면서 세금을 포함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모국의 국익과 규제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이금숙, 2000). 심지어 훨씬 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기능은 기존의 정부의 개입범위를 크게 축소시켜 국제지형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의 위상을 점점 더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Nachum, 2003). 정보화과정은 발전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등장하여 중심축을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이동시키며,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다국적 기업체의 자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chiller, 1998).

이와 같은 주장은 세계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미래에도 선형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한주성, 2008).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터넷 과정을 단순화시키며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작동기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영역은 국제질서의 원칙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치는 다양한 이해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통신기술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정보화 정책과 규제에 관한 쟁점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지형에서 비정부조직체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확산과 영향력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왔다는 주장은 여전히 의문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반론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권력은 국가권력을 여전히

대체하지 못한다(Donner, 2008). 둘째, 비정부조직체의 권력증가는 국가권력의 감소를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hapiro, 2000). 비록 인터넷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부문의 엘리트 계층이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압도하거나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정부나 국제기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힘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해 왔다(서정욱, 2004).

비정부조직체와 민간자원봉사단체의 대부분은 국가권력을 대체하기보다 주로 지구상에서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및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가정은 비정부조직체와 국가권력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며 대신 공동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Dany, 2012). 그러므로 비정부조직체 등 민간영역의 공공활동이 주요 행위자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오패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세계 각국이 더욱 더 교류하고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체성과 관심사를 ICT를 통해 지구촌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다원화과정을 촉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다.

비록 이러한 논쟁은 비정부조직체에서와 같이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출발하였지만 경제학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이 냉정한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통합정도는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김대호, 2015).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달리 실제 국제경제의 영역에서 투자행위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터넷 혁명으로 국제 거래가 상당할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은 여전히 무역이나 상거래에 통제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남기

범, 1998).

사회조직체의 차원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의 가장 현저한 효과는 시민 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어왔다는 점이다(Kalathil and Boas, 2003). 이러한 현상은 국지적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사회적 행위자간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에 중시되었던 접근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과정을 매우 쉽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안에서 자연적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 문화, 언어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켜 준다. 만약 ICT의 효과를 국제관계의 영역에까지 확장한다면 신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국제질서의 변화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가 있다(Castells, 2012).

### 3. 분석틀과 자료

각국의 사회발전의 결과는 사회구성원의 정부정책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공감수준으로 귀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운영과 공감수준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정책의 질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Guven, 2009). 예를 들어 공감수준이 높은 사회구성원일수록 사회복지와 같은 공적 재화나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선거과정이나 투표 등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Helliwell and Huang, 2008). 이러한 과정은 정부

정책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부의 실패 등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은 주어진 사회의 일반적 조건의 향상여부에 있으며 구성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사회구성원이 삶에 대한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공부패 방지 및 감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선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추구하게 된다(Kaufmann and Kraay, 2008).

그러므로 문화적 가치체계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 차원보다 문화적, 정신적 차원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연대나 전통적인 권위 및 관습에 대한 수용이 높으며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주의나 전통주의가 전체 사회의 준거틀과 부딪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가치관의 충돌로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기도 한다(Suh, 2014). 반면 현실적 기능과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조직의 원리가 공동체의 원활한 기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전통주의 가치를 현실합리적인 개인주의와 경쟁추구의 가치가 대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가치체계가 공존하면서 상반된 효과를 통해 가치공백의 위험성을 배태함으로써 발전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도 하다(정일환, 1998).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영향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감지향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체계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요소는 주관적 측정지표이기에 세계의 80%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가치조사의 온

라인 자료(World Values Survey, 2018)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51개국의 85,000명을 대상으로 13개의 사회 핵심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공감추구와 관련해서는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존경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라는 설문 문항을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서 전통주의는 “당신은 가족이나 종교 차원에서 유산 받은 전통이나 관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며, 개인주의와 경쟁추구에 대해서는 “당신은 자아표현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또는 “당신은 경쟁이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을 통해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응답점수를 표준화하여 측정한다. 이 자료는 세계가치관 지도의 구성과 흐름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층화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통해서 직접면접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국가 및 지역별의 시계열 방식으로 수집된다.

#### 4. 분석결과

국제사회의 발전과정은 어떤 가치체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가지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Halpern, 2010; 서문기, 2015). 먼저 희소가치를 갖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경쟁추구)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규범체계를 제공하는 정치적 영역(전통주의)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영역(개인주의)과 공동



체에서 수평적 관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영역(공감추구)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가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전통주의와 공감추구를 토대로 하는 가치관 지형도가 완성되며,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주의와 경쟁추구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통주의 및 개인주의로 구분하여 조직양식을 진단할 수 있으며, 관계적인 차원의 경우 공감추구 및 경쟁추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운영방식에 대한 측정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2X2] 표로 제시된 문화적 가치체계의 함수관계는 개인주의와 전통주의, 경쟁추구와 전통주의, 경쟁추구와 공감추구, 전통주의와 공감추구, 개인주의와 공감추구, 경쟁추구와 개인주의에 의한 6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4가지 가치체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피어슨 상관도표(Pearson correlation matrix)는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주의와 경쟁추구, 경쟁추구와 공감추구는 각각 .397 및 .35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주의와 경쟁

표 1. 문화적 가치체계의 핵심 요소

		공동체		관계
		전통주의	공감추구	
구조		경쟁추구	개인주의	
			개인	

표 2. 상관관계표(Pearson correlation)

	전통주의	개인주의	경쟁추구	공감추구
전통주의	-			
개인주의	.025	-		
경쟁추구	.397**	-.092	-	
공감추구	.248	.251	.352*	-

주: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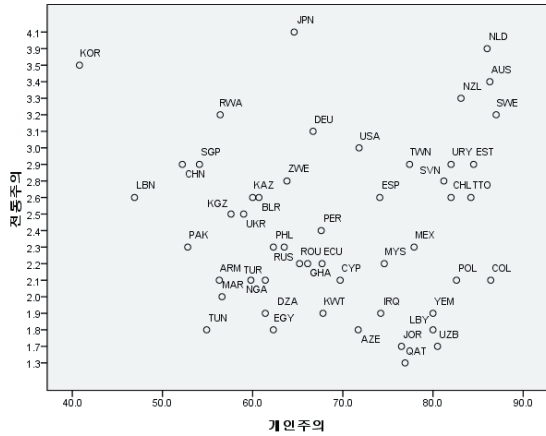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주의와 전통주의

추구는 -.092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먼저 개인주의와 전통주의의 가치체계에 의한 결합방식은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예외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개인주의와 전통주의의 가치체계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 진영에 위치하고 있다. 양 집단의 중간지대는 서구, 남미, 동구, 중동 국가군의 순서로 구성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은 데 비해 개인주의의 가치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전통주의의 가치체계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주의의 가치관이 강조되지만 개인주의의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체계의 편차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위계질서적인 문화에 의해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에 따른 역동적인 발전의 흐름에 주목할 수가 있다. 보편적인 기준에

서 볼 때, 전통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발전과정에서 개인의 영역보다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적 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응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요구나 주장보다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이를 평가하거나 조정하는 기회로 활용하거나 되돌림 효과를 내포할 수가 있다.

국제지형에서 경쟁추구와 전통주의 가치체계의 함수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전통주의 가치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추구의 성향이 높은 폴란드 및 아제르바이잔을 예외(outlier)로 하고 있다. 먼저 네덜란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전통주의 가치관이 높은 가운데 경쟁추구의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수준의 전통주의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경쟁추구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리비아, 예멘 등에서는 전통주의 및 경쟁추구의 가치체계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통주의와 경쟁추구 가치가 같이 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여전히 사회를 유지하고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며 최상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의 수준과 기업가정신이 높은 서구선진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발전의 열망수준이 높은 대부분의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공감추구, 전통주의, 경쟁추구의 관계는 <그림 3>과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각각 전통주의와 경쟁추구의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추구의 성향은 비교적 높은 분포를 고르게 보여주고 있다. 우루과이, 폴란드,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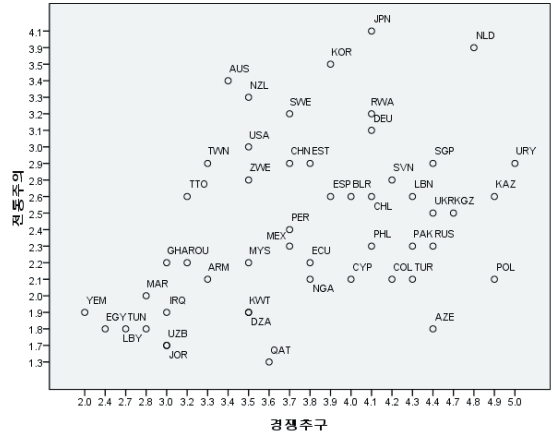


그림 2. 경쟁추구와 전통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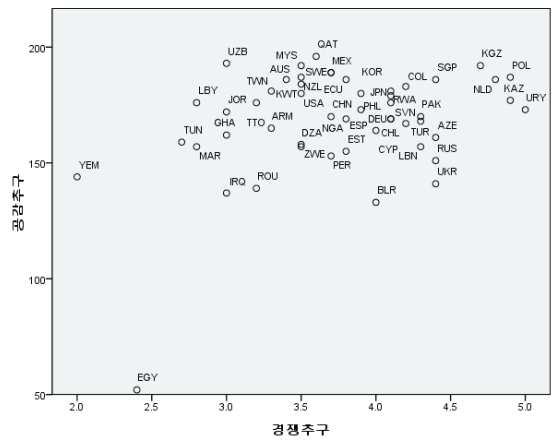


그림 3. 경쟁추구와 공감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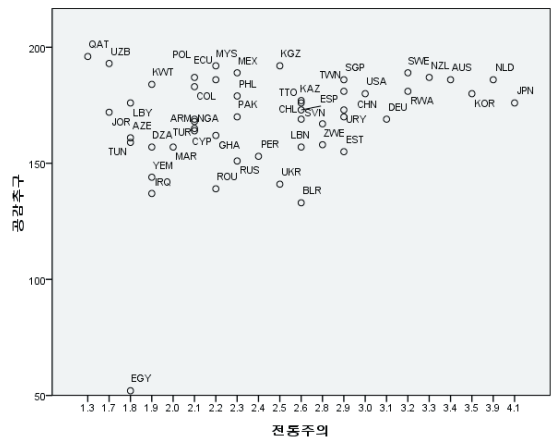


그림 4. 전통주의와 공감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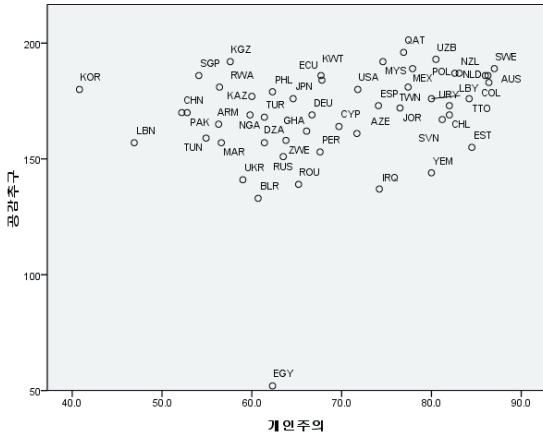


그림 5. 개인주의와 공감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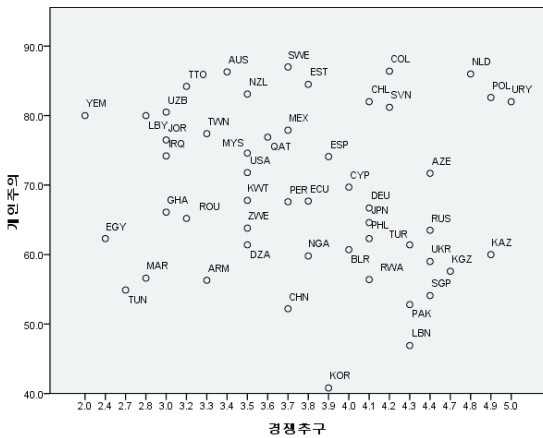


그림 6. 경쟁추구와 개인주의

지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경쟁추구의 성향이 높은 국가들로부터 튀니지, 리비아, 가나, 예멘, 요르단, 모로코 등 경쟁추구 성향이 낮은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공감지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 한국 등 전통주의 문화가치가 높은 서구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카타르, 요르단, 튀니지 및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전통주의 성향이 낮은 중동 및 구소련 지역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공감추구 성향을 갖는다.

〈그림 5〉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주의의 상당한 편

차에도 불구하고 공감지향은 대부분 평균이상으로 높으며, 스웨덴이나 호주 등 서구 국가와 함께 콜롬비아, 리비아, 에스토니아, 멕시코, 카타르 등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개인주의와 공감추구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낮은 데 비해 공감지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감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추구와 개인주의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6〉은 〈그림 2〉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국가군의 분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의 차원에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추구는 높은 편으로 특히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이에 해당된다. 서구의 경우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평균 이상의 경쟁추구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를 남미 및 중동 국가군이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및 폴란드에서 경쟁추구와 개인주의가 모두 높은 국가인 데 비해,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주의와 비교할 때 경쟁추구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국의 구조적 위치와 문화적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가치지향이나 감성의 공유를 강조하는 문화적 토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동체의 통합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별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제지형에서 볼 때 문화적 가치체계에는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분석틀과 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공감사회를 향한 유용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발전에 작용하는 핵심 가치의 유형과 조합에 따른 가치관 지형도의 분석결과는 국제사회의 지형을 이해할 때 특정 지역이나 문화 가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가치조합에 따른 구조적 특성과 공감사회의 내용을 진단함으로써 자(自)문화중심주의나 제국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 5. 글로벌 공감사회

국제지형에서 인터넷과 문화적 가치체계의 효과는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인터넷 혁명이 세계화과정과 함께 상호의존성을 크게 증진시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 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발전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질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와 같은 주요 행위자가 상호 기대하고 준수해야 하는 규범, 규칙, 절차 등을 갖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는데, 이는 인터넷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Mueller, 2007). 이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국제연합이나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이 현존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재구성하려는 흐름이 있다. 이러한 진영에서는 대부분 국제기구 및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과 구분이 안 된 채 글로벌 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사이버 공간의 변화하는 성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인터넷 혁명의 효과는 인권단체를 포함한 비정부조직체가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급성장한다는 데 있으며 각 조직체의 주요 활동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사이버공간의 확장은 국제지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이는 바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함수관계에서 커다란 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에 관한 권위체계를 분권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조직체가 다양한 형식으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기존 질서로부터의 권력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혁명 자체는 기술의 속성으로 볼 때 자발

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인터넷에 의한 통신수단의 변화는 사회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확산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용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가치체계에 의해 여과되기 때문에 ICT에 기초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無)정부적인 국제질서 안에서 주권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이해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딜레마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네트워크 혁명으로 주요 행위자간 상호작용과 관계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각국의 구조적 위치에 따른 협상력의 함수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김의영, 2013). 따라서 국제사회는 각국의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화적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자체는 보다 강력하고 완전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안보 문제로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질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로벌 공동체에 관한 초기 단계의 발전도 그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동체의 기준을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자 하는 욕구는 기존의 국제질서에서의 주권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열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변화된 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둘러싸고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으로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신방식을 통해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도전과 응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및 정보화 과정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면서 사회갈등과 문화충돌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초국가적 공동체 안에서 상호 공존하고 협력, 발전하는 방식은 글로벌 공감사회를 향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기존의 서구에 의한 잣대나 경험에서 벗어나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공감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과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공감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동참하거나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발 자체는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소수의 국가들이나 국제기구들에 의한 일률적인 합의보다 각국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이 반영되어 분권화된 권위체계가 작동하고 포용적인 공감문화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하연, 2013, "ICT 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정치 18, pp.73-110.
- 김대호, 2015, "글로벌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6(4), pp.111-120.
- 김의영, 2013,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구시민사회: 글로벌 회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1(1), pp.139-180.
- 남기범, 1998, "캐나다 도시체계에서의 다국적기업 연계패턴의 안정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pp.151-172.
- 박삼욱·최지선, 2003, "정보화와 정보기술이 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p.119-144.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pp.111-137.
- 서정욱, 2004, "WTO가 기업전략과 국제화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531-548.
- 이금숙, 2000, "세계화 경제에서 국제교역흐름의 변화: 기업내 교역의 증가와 그의 국제교역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1), pp.35-51.
- 정일환, 1998, "사회발전모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 pp.121-145.
- 한주성, 2008, "지식정보사회의 경제지리학 발전과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pp.273-301.
- Castells, M.,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Cambridge: Polity.
- Dany, C., 2012, *Global Governance and NGO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 Donner, J., 2008, "Research Approaches to Mobile Use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nformation Society* 24(3), pp.140-159.
- Guvan, C., 2009, "Are Happier People Better Citizens?," *Economics Series SWP 2009/04*, AU: Deakin University.
- Halpern, D., 2010,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NY: Polity Press.
- Harrison, L. and Huntington, S.,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Y: Basic Books.
- Helliwell, J. and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pp.595-619.
- Kalathil, S. and Boas, T., 2003,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aufmann, D. and Kraay, A., 2008, "Governance Indicators: Where Are We, Where Should We Be Going?,"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23, pp.1-30.
- Lessig, L., 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Y: Basic Books.
- Madon, S., 2004,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Impact of e-Governance Initiatives: An Exploratory Framework," *Electronic Journal on Information Systems in*

- Developing Countries* 20(5), 1-13.
- Mueller, M., 2007, "The Internet and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and Norms for a New Regime," *Global Governance* 13(2), pp.237-254.
- Nachum, L., 2005, "The Persistence of Distance?: The Impact of Technology on MNE Motiv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 pp.747-767.
- Rifkin, J., 2010,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 Schiller, D., 1998, *Digital Capitalism: Networking the Global Market System*, MA: The MIT Press.
- Shapiro, A., 2000, *The Control Revolution: How the Internet Is Putting Individuals in Charge and Changing the World We Know*, NY: Public Affairs.
- Suh, M-G., 2014,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The Myth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45(1), pp.61-86.
- Thompson, M., 2008, "ICT and Development Studies: Towards Development 2.0,"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6), pp.821-835.
- Unwin, T., 2009, Development Agendas and the Place of ICTs, in Unwin, T.(ed.), *ICT4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ld Values Survey, 2018, *Database*, <http://www.worldvaluessurvey.org/>(accessed on 20 October 2018).
- 교신: 서문기,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전화: 02-820-0495, 이메일: mgsuh@ssu.ac.kr
- Correspondence: Moon-Gi, Suh, Soongsil University, 06978, Korea, E-mail: mgsuh@ssu.ac.kr, Tel: 82-02-820-0495

최초투고일 2019년 5월 22일  
수정일 2019년 6월 4일  
최종접수일 2019년 6월 12일

## 〈부록〉

조사대상 국가명 약호(국제표준화기구)

국가명	약호	국가명	약호
Algeria	DZA	Morocco	MAR
Armenia	ARM	Netherlands	NLD
Australia	AUS	New Zealand	NZL
Azerbaijan	AZE	Nigeria	NGA
Belarus	BLR	Pakistan	PAK
Chile	CHL	Peru	PER
China(Main)	CHN	Philippines	PHL
China(Taiwan)	TWN	Poland	POL
Colombia	COL	Qatar	QAT
Cyprus	CYP	Romania	ROU
Ecuador	ECU	Russian Federation	RUS
Egypt	EGY	Rwanda	RWA
Estonia	EST	Singapore	SGP
Germany	DEU	Slovenia	SVN
Ghana	GHA	Spain	ESP
Iraq	IRQ	Sweden	SWE
Japan	JPN	Trinidad Tobago	TTO
Jordan	JOR	Tunisia	TUN
Kazakhstan	KAZ	Turkey	TUR
Korea(South)	KOR	Ukraine	UKR
Kuwait	KWT	United States	USA
Kyrgyzstan	KGZ	Uruguay	URY
Lebanon	LBN	Uzbekistan	UZB
Libya	LBY	Yemen	YEM
Malaysia	MYS	Zimbabwe	ZWE
Mexico	MEX	N	51